

정진석, BTS 입영 연기 취소에 "대한민국 청년 애국심 보여줘"

등록 2022.10.17 21:50:38 | 수정 2022.10.17 21:53:49

"어느 누구도 병역의무 피해가서는 안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방탄소년단(BTS) 맴형 진(30·김석진)이 10월 말 입영 연기 취소를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병역 특혜를 둘러싼 긴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단순한 병역의무 이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의 애국심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BTS 청년들의 결심이 큰 울림을 준다"고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빅히트뮤직은 이날 "곧 개인 활동을 갖는 멤버 진은 오는 10월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청년 누구에게나 부과된 신성한 의무"라면서 "청년들에게 나라 위한 더 이상의 애국이 없다"고 덧붙혔다.

그러면서 "병역의 의무를 면탈해 주는 것이 선행에 대한 보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각종 병역 특례 제도는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어느 누구도 병역의무를 피해가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여야는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문제를 놓고 온도 차를 계속 보여왔다.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BTS의 경제효과·국위선양을 이유로 들면서 병역 특례를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반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BTS의 병역특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병역환경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병역 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방탄소년단(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